



본부 캠프디아 지원사업장 반티프리업 학생들
(사진. 임종진 작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 (1요한 4,16)**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제 29회 장애인 주일입니다.

해마다 장애인 주일이 되면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도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쉬쉬거리며 숨겼지만, 오늘날에는 장애인이 집 안에 있음이 흠이 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이 살아감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장애인들의 복지권이 더욱 강조, 강화되고 있음에 왜 장애인들은 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야 할까요? 복지권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복지 시설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서로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삶, 나눔과 배려의 삶이 없이는 울리는 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귀한 존재인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4,7)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 없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며 이 시대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차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 국제협력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인도적 구호 및 국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부 긴급 구호자금.
4억 1천9백만 원 전달



사진출처: Caritas Internationalis

칠레 지진 피해와 관련, 다른 국내 민간 구호 단체들이 현지 방문을 통한 실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긴급 구호자금 지원으로 현지 구호 노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해외원조 기관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지난 3/29(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칠레 카리타스를 통해 긴급구호자금 4억 1천9백만원(※서울대교구 2차현금 포함)을 칠레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칠레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칠레 카리타스와 콘셉시오 대교구에 전달되어, 식료품 등 구호 물품 구입 및 현지 재건에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 카리타스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전국 각 교구 차원의 모금 운동과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칠레·아이티 국민 돕기 특별 모금운동

후원 문의 및 특별 모금 계좌

■ 칠레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아이티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전화 02.727.2267

캄보디아에서 온 희망의 편지



화해와 평화의 학교

- 클리엥 반 (Klieng Vann)

1990년 4월, 군 작전 수행 중 지뢰사고로 왼발 무릎 아래쪽이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절망감에 자살까지 시도했었던 제가, 커다란 장애인 센터의 학교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반티프리업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인 봉사자의 설득으로 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처음 반티프리업 센터에 와 보니 저 말고도 많은 전쟁 피해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저와 총을 겨루었던 반대편 전직 군인들 또한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솟구쳤지만, 그 역시 같은 처지에서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직업학교 졸업과 동시에 1993년 11월부터 전기반 교사로 일하기 시작, 2003년 기술학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반티프리업 센터와 함께 한지 어느새 1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사이 저는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었고, 센터를 거쳐간 학생들도 이미 1,500여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희망이며 원천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의 구석진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센터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의 동기를 찾아가게 되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반티프리업에서 다양한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사진: 임종진 작가)

「반티프리업」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어로 직역하면 '비둘기센터' 즉, '평화센터'라는 의미입니다.

20여 년에 걸친 오랜 내전을 거친 캄보디아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장애뿐만 아니라 전쟁 및 지뢰 피해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1991년 문을 연 반티프리업.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1~2년 과정으로 다양한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숙학교의 학생과 교사로 캄보디아 전역에 보급되고 있는 휠체어를 만드는 작업장의 숙련 기술자로, 지역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사회복지사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장애와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6년부터 반티프리업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부 백혈병·난치병 환자 지원사례

몽골에서 온 어린 천사

갓 18개월의 몽골아기 이르문(Irmuun).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처지를 전해들은 한양대학교 학생회의 도움으로 항공권과 진료비를 후원 받아 작년 9월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진료비는 막대하게 불어났으며 비자기간까지 만료되며 더욱 상황은 촉박해졌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턱없이 많은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발급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끝낸 상태에서 몽골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안고 치료를 갓 시작했으나 모든 어둠을 밝히기에는 불빛이 한없이 모자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접한 병원 사회사업실의 소개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부는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문 군에 대한 본부의 지원서는 당장 며칠 후에 몽골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르문 군의 몽골 비자를 연장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입니다. 꾸준한 치료로 7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한 병인데도 고액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아를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병마의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난치병 환아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0명의 환아들에게 총 8억 76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보다 남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후원자 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병마를 이겨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일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어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인 아이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10. 03 백혈병·난치병어린이지원사업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정** (남, 만 8세)	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만 원
임** (남, 만 7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만 원



병원에서 치료중인 몽골아기 이르문(Irmuun)과 이르문의 엄마 자르갈(Jargal)

45,345 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0년 3월 31일 현재)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안내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512-03-004088 / 국민은행 083-01-0309-453
- 지로 7522277
- ARS 060-700-1117
- 농협 386-01-015833 /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

몽골 한국 NGO 해외장기봉사단 파견

국제협력부에서는 지난 3/24(수), 몽골로 2010년도 한국 NGO 해외장기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본부에서 실시한 국내교육(3/11~15)을 마치고 몽골 방양해서 가나안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한 진씨, 방양해서 마리안느 자선병원 의무기록사로 박희란씨를 새롭게 파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파견되어 현지에서 건축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씨와 2009년부터 몽골 중무트시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염은경씨에 이어 이번엔 새롭게 파견된 자원활동가들의 아름다운 나눔을 기대합니다.

2010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확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부는 지난 2009년도, 2010년도 한국국제협력단 민간단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개 사업 약 1억 8천9백2만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예수회의 반티프립업장애우기술학교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우 자력화(Empowerment) 프로그램"에 1억 1천만 원, 몽골 예수수도회의 메리워드청소년센터 및 CCM도서관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7천 9백2만 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본부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리는 소식

장기이식법안 관련 대국민 청원 기자회견

뇌사 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설립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개선해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 외 5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1년 이상 지연되자 대한이식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의료계와 민간단체가 함께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장기이식법안관련 대국민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민간단체 모임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해 "많은 뇌



사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야 여러 경로를 통해 뇌사 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며 "장기기증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뇌사자가 발굴되고, 그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절실함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제4회 바바라 플랫폼즈 사랑나눔 바자회
제4회 바바라 플랫폼즈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가 4/25(일) 10~19시까지 명동성당 별관에서 진행됩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이번 바자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254)

● 2010년 훈자리축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10년도 장애인인 날(4/20)을 맞아 4/21 과천서울랜드에서 훈자리축제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의날 기념미사 및 문화프로그램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240)

생명운동

생명운동 참여현황 (1/1~3/26 기준 집계)

※ 단위:명

날짜	장소	장기	조혈모	헌혈
3/11	서울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89	*	82
3/13~3/14	수서동성당	325	20	*
3/14	역촌동성당	226	38	41
3/20~3/21	의정부교구 마두동성당	378	34	*
3/20~3/21	명동성당	119	*	34
3/22	수원가톨릭대학교	*	71	86
3/27~3/28	서교동성당	202	69	*
3/28	의정부교구 신곡1동성당	146	16	*
1/1~3/26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517	310	*
~2009	이월	*	420	*
총계		2002	978	243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개소

생명친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3/22(월), 생명수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한 해, 자살사망자 수가 1만2,850명으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발표(2010.3.24)하며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 생명수호운동의 중심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가 초대 센터장을 맡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핵심활동은 당장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상담입니다. 이를 위한 전화 핫라인이 설치됐고 25년 상담역사를 가진 '나눔의 전화'가 함께 합니다. 1599-3079 '생명친구'라고 읽혀지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이 핫라인이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그들로부터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희망의 번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자살예방센터 1599-3079(생명친구) ● 상담시간 (월~토) 10시~21시30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